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집단교섭 속도 5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5.21.(목)

사측 제시안 여전히 부족... 책임있는 안 제출해야 핵심 요구안 대부분 검토 수준... 교섭 진전 더더



금속노조 경주지부 제5차 집단교섭이 5월 21일 (목) 14시, 리어코리아지회 강당에서 진행 되었다.

교섭에 앞서 13시10분부터 리어코리아지회 현 장순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교섭에 들어갔다.

이번 교섭에는 노측대표 정진홍 지부장 외 22 명, 사측대표 김대근 본부장 외 12명이 참석 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금속노조 경주 지부 박인룡 총무부장의 사회로 진행 하였다.

교섭에 앞서 리어코리아 강호성 대표이사는 “경주지부 집단교섭은 지역사회에도 큰 의미 가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뢰와 존중으로 투명하게 소통해왔고, 이번 교섭 역

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측대표 김대근 노사상생본부장은 “최근 여 러 사업장에서 노·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며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섭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노측대표 정진홍 지부장은 “오늘은 5차 교섭이지만 차수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얼마 전 현대아이에이치엘과 관련해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자동차 라인에도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지부는 언제든 현장의 힘을 행사할 수 있지만 파국이 발생하기 전에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측이 늘 이야기하는 신뢰와 존중이 교섭 과정에도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사측 2차 제시안 설명이 진행됐다.

사측대표 김대근 노사상생본부장은 채용 조항과 관련해서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채용 방식은 회사의 채용 계획과 직무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섭의무 항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과 계약직의 정규직화 등 근로자 지위 문제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사업경영상 결정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며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문제 역시 교섭 석상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측대표 정진홍 지부장은 “사측 제시안이 원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차기 교섭에서 지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요구안은 예년보다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가능한 원안 수용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하였다.

이날 교섭에서 일부 제시안 설명이 진행됐지만 주요 요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수

준의 입장이 이어졌다.

추가 발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섭을 마무리했으며, 차기 6차 교섭 일정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사측제시안

①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지자체 요구] 관련: 지자체 검토중

② 제19조 [채용] 관련

- (요구안) 직원의 채용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단, 지원자가 없을시 기존의 채용방식을 따른다. (항추가)
- (제시안) 회사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극 검토한다. 채용방식은 회사의 채용 계획 및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노조법 개정(시행령)에 따른 교섭권 보장] 관련: 검토중

④ [교섭의무]

- (요구안) 기재 생략
- (제시안) △ 정규직 전환, 계약직의 정규직화 등 근로자 지위는 고용안정위에서 다룬다. △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룬다.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은 교섭 석상에서 다룬다.

